광주·전남 제조업 취업자 20만명 아래로 '뚝'

하반기 고용조사…광주 10만명·전남 9만7000명 전년비 6.2%↓
여수·장성·목포 2년 연속 감소…광·제조업 취업자 비중 영암 1위

광주 제조업 취업자가 4년 연속 감소한 영향을 받아 지난해 하반기 광주·전남 제조업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주저앉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목포와 여수, 장성 제조업 취업자는 2년 연속 줄었다.

25일 통계청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광주 10만명·전남 9만7000명 등 19만7000명으로, 전년 하반기(21만명)보다 6.2%(-1만3000명) 감소했다.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광주·전남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밑돈 건 통계를 낸 지난 2013년(20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특히 광주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7년 11만7000명 이후 11만3000명(2018년)→10만8000명(2019년)→10만6000명(2020년)→10만명(지난해) 등으로 4년 연속 줄어왔다. 5개 구(區)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광·제조업 취업자 수는 광산구가 5만3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2만5900명, 서구 1만4500명, 남구 7400명, 동구 4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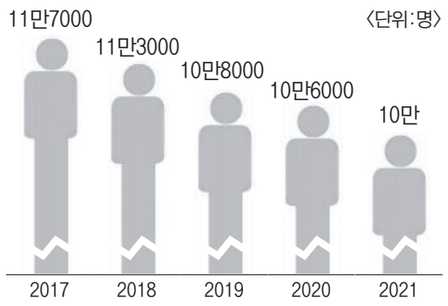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년보다 광·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든 지역은 10곳이다. 이 가운데 2년 연속 감소한 시·군은 여수와 장성, 목포 3곳이다.

광·제조업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보성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는 전년보다 44.4%(-800명) 줄어든 1000명으로 집계됐다.

진도(-16.7%)와 장흥(-15.4%), 장성(-14.3%), 완도(-11.1%) 등 5개 지역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늘어난 8개 시·군 가운데 무안의 증가율이 23.9%(4600명→5700명)로 가장 높았다.

■광주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2년 연속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한 시·군은 무안과 나주, 순천 3곳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남에서 광·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암으로, 전체 취업자 3만4700명 중 21.3%인 7400명이 해당했다. 영암 광·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9.9%에서 21.3%로, 1년 새 1.4%포인트 늘어났다.

광·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영암과 광양(19.6%), 목포(13.6%), 무안(12.6%), 여수(12.0%) 등이다.

여수의 경우 광·제조업 취업자 수가 1만9000명에서 1만7600명으로, 1년 새 1400명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0.9%포인트 감소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통적 지역산업인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신안(67.1%·1만5300명)과 고흥(56.3%·2만2000명), 함평(54.9%·1만명), 해남(50.7%·2만600명) 등 4개 군이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비중이 20%를 넘은 곳은 목포(22.9%·2만5000명)가 유일했고, 순천(18.5%·2만7000명)과 여수(17.9%·2만63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시·군은 10개였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 비중은 화순(46.1%·1만5400명)과 순천(42.2%·6만1500명), 목포(41.2%·4만4900명)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안 '퍼플섬' 여행상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추진

신안 '퍼플섬' 여행상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추진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단일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최근 신안군과 '신안 여행상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신안 '퍼플섬' 여행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퍼플섬은 지난해 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됐다. 퍼플섬은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영상 촬영지로 주목받기도 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이 상품이 등록되면 전국 6만4000여 수요기관과 40만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김공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신안 퍼플섬 여행상품 활성화에서 무엇보다 안전성과 이용편의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관광상품의 공공기관 이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번 나가더라도 알차게"…캠핑장 빔프로젝터 인기

롯데百, 카메라 4월 매출 30%↑
이마트 냉방가전 할인전 진행도

거리두기 해제와 이른 더위가 맞물리면서 계절성 가전 수요가 늘고 있다.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이 점포에서 카메라 상품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카메라 상품군 가운데 활동성이 강한 '고프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외 활동이 확대되면서 캠핑장에서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시청에 최적화된 빔 프로젝터와 오디오 기기 등도 인기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스마트 시계와 이어폰 매출은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윤현철 롯데백화점 전자기기부문 팀장은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엔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야외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가전 동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때 이른 더위에 냉방 가전 할인전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선풍기를 총 10만대 준비했다.

이는 지난해 봄 시즌 행사 때 준비했던 물량 5만대보다 2배 많은 것이다.

또 다음달 8일까지 에어컨을 행사 카드로 구매하면 상품권을 증정하고 공기청정기 등과 함께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선풍기는 다른 상품보다 30~50% 저렴하게 선보인다.

이마트의 지난 8~21일 선풍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늘어 가전제품 매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에어컨 매출도 33.6% 늘었다.

이마트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냉방 가전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성 가득 생활 소품 구경오세요 25일 동명동 마을기업인 '플라마코 협동조합' 직원들이 광주신세계 본관 1층 행사장에 마련된 '여덟 번째 파장'(8th_wave) 임시 매장에서 다양한 생활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주 작가&우수 공예품 판로 개척 프로젝트'의 하나로 다음달 4일까지 이번 기획전을 운영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농협 전남본부, 팜스테이 마을 육성·농촌관광 활성화 총력

팜스테이협의회와 간담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촌에서 문화와 관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팜스테이'(Farm stay) 사업에 이달 현재 전남에서 2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이날 강진군 옴천면 엄지마을을 찾아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팜스테이는 농가에서 숙식하며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한 농촌체험관광 상품이다.

전남에서는 엄지마을 등 2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남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팜스테이를 포함한 농촌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전남농협과 팜스테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농촌마을 체험학습 ▲도시가족 주말농부 ▲팜스테이 체험 및 농특산물 홍보박람회 개최(가칭)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많은 방문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마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농협은 팜스테이 마을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7.13 (-47.58)
↓	코스닥	899.84 (-22.94)
↓	금리 (국고채 3년)	2.857 (-0.114)
↑	환율 (USD)	1249.90 (+10.80)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